

1~2주가 골든타임... '입원 대기' 경증 2000명 곧 수용

대구 신천지 잠복기 하락세 전망
전국신도 19.5만명 99% 검사 완료
대구신도 62% 총 2685명 '양성'

영덕·경주에 생활치료센터 개소
중증환자 위한 병상 마련 하기로

정부가 앞으로 1~2주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의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다음 주 초까지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환자 2000명을 생활치료센터에 분리해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 진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조사 마무리 단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지난 달 16일 열린 대구 신천지 집회 이후 잠복기(14일)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는 총 4286명의 확진자가 발생, 국내 확진자의 88% 가량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며 병상이 부족해지자 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 모인 경증 확진자들이 경주 등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대구 시내에 흩어져 있던 경증 확진자 약 300여명은 이날 119 앰بول런스를 타고 대구스타디움에 집결 후 마련된 버스를 타고 지정된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했다. /연합뉴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신천지 신도 19만5162명 중 19만2634명(98.7%)에 대한 증상 유무 확인 전화 조사가 마무리됐다.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완료된 신도 4328명 중 26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 판정률은 62%다. 대구·경북 외 지역의 유증상자신도는 4066명이고, 양성판정률은 1.7%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금까지 총 12만6000건 정도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고, 이중에 검사가 완료된 9만여 건에 대한 검사 결과로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은 약 5.3%로 나타났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빠른 확산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

지는 않다"며 "지역전파가 본격적으로 대구 외 지역에도 확산됐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대구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신천지 신도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일반 시민에 대한 검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주민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 등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치료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검사부터 치료까지 우선순위를 재설정했다"고 말했다.

◆2000명 경증환자 수용할 것

정부는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확충해, 다음 주 초까지 2000명 이상을 수용할 계획이다. 중증 이상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가 목적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138명의 환자가 어제 처음 문을 연

'대구1 생활치료센터(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 입소했다. 이날 중 22명이 추가로 입소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약 16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 주까지 2개의 시설이 추가로 문을 연다.

김 총괄조정관은 "영덕에 소재한 삼성인력개발원(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과 경주 농협교육원(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이 오늘부터 개소하게 된다"며 "또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도 이번 주 중에 개소해 경증 환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설들을 모두 포함하면 약 6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 대구시에서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 환자는 약 1800명이다.

김 총괄본부장은 "국공립과 민간의 시설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충, 다음 주 초까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모든 역량을 다해, 대구시의 확진환자들의 자택대기상황을 조기에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재택근무·자율출근제 시행 등 건설사도 코로나19 예방 만전

SK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 등 참여

국내 건설사들이 '코로나 19' 여파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공사현장을 중단하는 등 예방조치에 나섰다. 확진자가 증가하자 성금을 기탁하는 등 도움이 손길을 주는 곳도 늘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일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전 직원에게 3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각 단위조직별 인력을 3개조로 구분해 각 1조씩 1주일간 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방식이다.

대림산업은 임산부 등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출근시간도 오전 10시로 조정했다.

현대건설은 임산부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본사 각 팀의 20% 정도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지난주부터 임산부,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 만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다.

삼성물산도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주부터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출근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직원들은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원하는 시간에 출근한다. 삼성물산 측은 당분간 자율출근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6일 임산부와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에 한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 연기 결정에 임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린 조치다.



현대건설 서울 계동 사옥.

현장 근무가 불가피한 건설업의 경우 재택근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우려돼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 분당 현장과 27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현장 근무자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장이 폐쇄되기도 했다. 현대건설도 대구·경북 지역 근무자가 감염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1일까지 총 7개 현장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택근무 실시 외에도 전 직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눠주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여명을 넘어 서자 성금을 기탁하는 건설사도 이어지고 있다. 호반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지역 등에 방역 물품을 전달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사용된다.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 사랑나눔이'는 마스크 3만장을 구매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태영그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성금 모금처인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5억원을 전달했다.

/정연우 기자 yw94@

신한금융 '코로나 극복' 4개월간 50억 모금

'호프 투게더 캠페인' 전개

의료진·소외계층 아동에 물품지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지역 의료시설에 기부금 전달

신한금융그룹은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호프 투게더(Hope Together)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오는 6월까지 4개월 동안 총 50억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되며, 사회적 관심 유도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컨셉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신한금융 전 그룹사와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소셜 기부(Social Donation)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먼저 질병대책본부, 광역의료시설 등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돌봄공백에 노출된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생필품 키트 및 밀박스' 등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번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을 후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신한금융의 전 그룹사가 매주 분담해 마련한 기부금과 함께 대국민 참여로 모금된 기부금은 4개월에 걸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등 전국 의료시설 및 비영리단체(NG



신한금융희망재단이 3일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후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한금융희망재단 조용병 이사장, 성용락 감사, 신한금융투자 김정훈 부장, 김봉래 이사, 김석동 이사. /신한금융

O)에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희망재단이 10억원을 투입해 지역사회의 회복을 돕는 공모사업 방식의 CSR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날 오후 첫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후원방안에 대해 결의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회에 참석한 조용병 회장은 "이번 호프 투게더 캠페인은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신한금융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취지로 기획했다"며 "국민들과 신한금융 전 그룹사가 함께 힘을 모아 조속히 이 위기를 극복해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호프 투게더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은 오는 5일부터 신한금융과 와디즈가 함께 만든 소셜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전사적인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그룹 차원에서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총 20만 개의 마스크를 구매해 배포했다. 현재 가장 피해가 많은 대구지역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1만개의 마스크를 긴급 지원했다.

신한은행, 제주은행 등 그룹의 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총 5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 실시하기로 했으며, 피해기업 연체이자 면제 등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신한은행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안전망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입회환 입금 지연 발생 시 연체가 산금리(1.5%) 1개월 면제와 함께 수출환어음부도 1개월 유예 지원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신한은행 중국 현지법인인 중국 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후원금 200만 위안을 기부했다.

전국의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앞으로 3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로 월 임차료를 30% 감면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